김정기 산들네트웍스 대표 전남대 발전기금 1000만원

김정기(왼쪽) ㈜산들네트웍스 대표가 지난 2일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에게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전남대 제공〉

광주교통문화연수원-도로공사 지역본부 협약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홍남진)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학구)는 최근 연수원 2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문화연수원 제공〉

KT전남고객본부 봉사단 '사랑의 식당'서 삼계탕 대접

KT전남고객본부(본부장 오기섭) KT사랑의봉사단원 20명은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사랑의식당'을 방문해 소외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500인분을 대접했다. 〈KT전남고객본부 제공〉

광주 남구 '일자리 신속집행 실적평가' 우수기관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1분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2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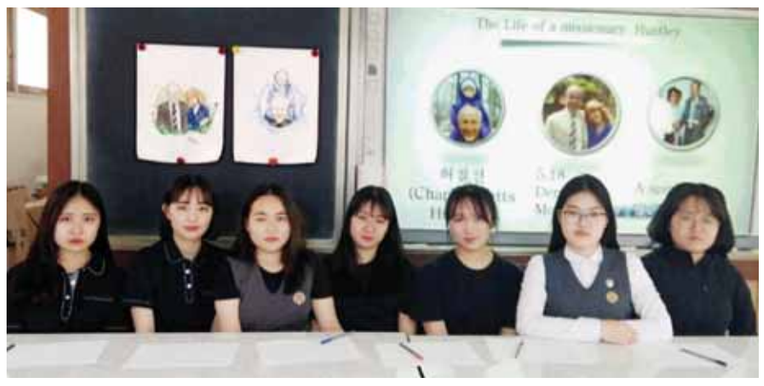
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40점)과 일자리 사업 발굴 실적(30점),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액 규모 가중치(30점) 등 3가지 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1분기 일자리 사업 분야 신속집행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사업 실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 참상 해외 알린 희생정신 기리고 싶었어요"

5·18 광주 은인 헌틀리 목사 추모행사 조대여고 동아리 'With You'

유가족·양림역사동아리 참여
16일 양림동 헌틀리 사택서 열려
점심시간에 그림·영상물 만들어
감사편지·추모 영상 등 선보여

조대여고생들이 그린 헌틀리 부부.



조대여고 'With You' 동아리 학생들.

광주 여고생들이 5·18 참상을 해외에 알렸던 고(故) 헌틀리(Charles Betts Huntley·한국명 허철선) 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대여고 민주인권동아리 'With You'와 광주 기독교 복음화 연구·계승단체인 'THE 1904'가 16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헌틀리 선교사 사택에서 추모의 밤 행사를 갖는다.

헌틀리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기독교병원 원목으로 사역하며 계엄군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혼잡한 거리 사진 등을 촬영해 해외에 알린 인물이다. 추모행사에는 헌틀리 목사 유가족도 참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자택에서 영면했다.

헌틀리 목사는 기록 사진을 군이 번번이 압수하자 사택 지하에 암실을 만들어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 전송했다.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 기자 출신이던 헌틀리 선교사의 아내 마르다 헌틀리도 남편을 도와 기사를 작성했다.

헌틀리 목사는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한 독일 힌츠페터 기자에게 사진을 비밀리에 전해주고 다른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광주시민의 대변인이 돼 주었다.

여고생들이 헌틀리 목사 추모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은 한정희 교사의 영향이 컸다. 올 3월 남구 양림동 헌틀리 목사 사택에서 진행된 'THE 1904' 모임에서 헌틀리 목사의 생애를 들은 한 교사가 교내 인권동아리 'With You'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추모 준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46명으로 구성된 조대여고 민주인권동아리 'With You'는 이날 추모행사 준비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림과 영상물을 만들었다.

추모행사는 16일 오후 5시30분 양림동 수피아여고 정문과 수정서점 샛길에 위치한 '헌틀리 목사 사택 광장'에서 시작된다. 추모행사에서 조대여고 학생들은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며 헌틀리 목사에게 쓴 감사편지, 추모 영상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대여고 한정희 교사는 "학생들이 광주의 은인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에는 양림역사문화마을 연구동아리 '유럽에서 온 펭귄'이 함께 참여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정읍 배영중 대상 청소년 환경교육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안기권)은 정읍 배영중학교(교장 김형직) 1·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2박3일간의 청소년 환경교육(사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팀 데몬스트레이션(단체줄넘기, 파이프라인, 바운딩볼)을 비롯해 환경 골든벨, 환경전문 교수 특강, 숲 이야기와 숲 밧줄 놀이, 미세먼지 바로알기, 에너지절약 수첩 만들기, 미션 카프라, 환경 버튼 만들기, 축제의 밤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지렁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환경 애니메이션 '지렁이 똥 이야기'시청으로 마무리된다.

김형직 교장은 "수련활동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키우는 것이다"며"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좋은 품성을 키우기 위해선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승 광주대 교수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

광주대학교 김승(사진)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의학, 과학, 인문, 사회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김 교수는 천연물의 생리활성 검증 연구와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50여 편 이상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연구과제(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장흥군, 담양군) 및 산업체 연구 과제를 15개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광주대는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장근 목포대 교수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장 선출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오장근(사진)교수가 최근 '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5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는 2011년 각국 문화의 글로벌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발전과 인류 공동의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족, 현재 해외지역문화연구의 제반 이론과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국제문화교류 및 다문화교육의 왕성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로 교수와 문화예술가 등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장근 교수는 "국내외 연구자들과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제문화교류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인사

◆조선대

▲총무관리부처장 홍희만 ▲인사혁신부처장 류연웅 ▲학사운영팀장 박호신 ▲취업경력개발팀장 윤순정 ▲교원인사팀장 구승림 ▲연구진흥팀장 김영묵 ▲중앙도서관 부관장 조진태 ▲법과대학 교학팀장 기홍상 ▲총무팀장 김권수 ▲입학팀장 박준영 ▲홍보팀장 양효술 ▲국제협력팀장 임병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송성용·김미승씨 장남 송원철(삼천리자전거)군 전권상·이강아씨 장녀 전은재(광주일보 문화부)양=5일(토)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까다시루체 웨딩홀 1층 루체홀.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도종친회 재광회원 모임=4일(금)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 구 카토릭센터 뒤 맛집 한겨레 김진기 010-3278-4663.

알림

▲5·18교육관 사무국장 채용=서류접수 4일(금)~11일(금) 공무원 5급이상 경력,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상장회사 5년 이상 경력자 채용. 문의 062-372-518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부음

▲박연자씨 별세 손강현·현희·희영씨 모친상 권기수·김주엽씨 빙모상=발인 4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5분향소 062-231-8905.

▲문석귀씨 별세 문성용·성호·명수씨 부친상 양정란·선인숙씨 시부상=발인 5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정윤자 님(여/76세)
子/子婦 : 조대웅/임은경, 지웅/박혜미
女/壻 : 조미라/오화진 夫君 : 조동현
孫 : 조기혁, 건희, 장훈, 하연, 오유경, 유빈
• 발 인 : 5월 4일
• 장 지 : 화순 동면 선영(매장) • 연락처 : 227-4381

401호 故명춘례 님(여/90세)
子/子婦 : 박복윤/박복자, 월윤
女/壻 : 박경애/윤정환, 경심/이종구
孫 : 박봉호 夫君 : 박석중
• 발 인 : 5월 5일
• 장 지 : 망월묘역(화장) • 연락처 : 227-4383

102호 故양해순 님(여/92세)
子/子婦 : 김남선/김재심 女/壻 : 김길순/김병만, 명순
孫 : 김관식, 장식, 위광, 위진, 이정우, 향민
• 발 인 : 5월 4일 • 장 지 : 임실호국원(화장) • 연락처 : 227-4000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062·227·4000
www.mykumho.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3월 19일 丙申)

子 36년생 너무 따지려 들지 말라. 48년생 어중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수이다. 60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72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84년생 판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31, 96

丑 37년생 우선 피하고 보자. 49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 번 낫다. 61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하자. 73년생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85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62

寅 38년생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50년생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62년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74년생 승산이 있으니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86년생 종국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3

卯 39년생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수밖에 없다. 51년생 간단하게 처리하자. 63년생 따질 계제가 아니니 일단 수용하고 보자. 75년생 신속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87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45, 66

辰 40년생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는다. 52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중하다. 64년생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76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겠다. 88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하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24, 82

巳 41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다. 53년생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괜찮다. 65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7년생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89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46, 51

午 42년생 부담감 느낄 필요 없다. 54년생 맹목적이라면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66년생 굳이 구분할 것까지는 없다. 78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90년생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0, 04

未 43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함만 못 하느니라. 55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67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79년생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않으면 맹점을 안게 되리라. 91년생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8, 06

申 44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56년생 표리부동하니 전후의 사정과 면모를 잘 살펴라. 68년생 진정한 의미를 알라. 80년생 가능한 일이니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92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9, 22

酉 45년생 판도가 달라진다. 57년생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를 약간만 달리하자. 69년생 지출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81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징을 부르리라. 93년생 활로 개척을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65, 63

戌 34년생 현상만 유지하자. 46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58년생 쌓아 놓은 공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70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82년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99, 94

亥 35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47년생 연잎은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법이다. 59년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자. 71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83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하리라. 행운의 숫자 : 57, 2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